

세계화에 대한 대응

국제 스타디서클(ISC)

알라나 데이브(Alana Dave)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 국제 스타디서클 프로젝트 간사

세계 곳곳의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은 세계화가 낳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루어야 한다. 오늘날 자본은 높은 이윤과 값싼 노동과 새로운 시장을 찾아 생산을 국경너머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초국적 기업은 각국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경쟁하도록 내몰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행위자가 되어 왔다.

또한 세계화는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문제와 공격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실업증가, 민영화, 점차 커져 가는 초국적 기업의 힘, 산업구조조정, 일자리의 성격 변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공격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각국의 노동조합들과 국제노동조합들은 어떻게 세계화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새로운 산업을 조직하고, 산업적 토대(muscle)를 다시 세워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제산별연맹들(ITSs)같은 국제노동조합 조직들은 노동조합 기본권 및 작업장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 차원 혹은 각국 차원의 노조조직을 조직하고, 행동지침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기업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적인 협약들을 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같은 초국적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세계화는 각국의 노동조합이 자기 문제를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따로 떼어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각국이 직면한 문제들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9.25~27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국제 스터디그룹 준비세미나'에서 알라나 데이브가 국제스터디그룹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조합 힘의 원천은 각국 차원의 조직화에만 의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힘을 기르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조합이 서로 만나는 고려와 연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와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화의 도전에 대항하는 유효한 전략과 투쟁을 각국 및 국제 차원 모두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국제적인 비전이 부족하다. 국제활동은 조직 내부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제부의 일로만 남아 있다. 이런 노동조합(전국상급단체)은 국제부조차 없다. 많은 경우 국제 연대는 일반조합원의 참여 없이 몇몇 개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노동쟁의와 관련한 국제연대 활동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으며, 아직도 대다수 노동조합은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값싸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단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경우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 노동조합 교육프로그램에조차 들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국이 처한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들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조합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설사 세계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정점들은 추상적으로 다뤄지며 노동자들의 일상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자 교육의 역할

오늘날 국제노동자교육운동은 공식적으로 국제노동자교육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 Association, 이하 IFWEA)로 대

표되고 있다. IFWEA는 노동자 교육에 관련된 각국 노동조합, 국제산별연맹, 노동자교육협회, 비정부기구(NGOs)들이 함께 모인 국제 조직이다. IFWEA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를 비롯하여 53개국에 100여개의 회원 조직을 갖고 있다.

1996년 열린 IFWEA 총회는 세계화와 노동자 교육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세계적 차원의 경제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국제노동자교육운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교육은 세계화와 그 대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IFWEA는 교육의 주제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질서재편의 시기에 국제노동계급의 이익을 방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정보를 회합함으로써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FWEA 의장인 단 갈린(Dan Gallin)은 이 활동의 구체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쟁점들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은 중요하다. 우리는 국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 내용이 필요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각국의 노동자들은 세계화에 대해 서로 배우며, 공통된 대응과 전략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노동자들에게 세계화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단지 엄청난 시장, 자본흐름, 금융기관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국제 스터디스쿨은 핵심적인 국제문제들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탐구되어 왔다. 세계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토론과 정보 배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직접 만나는 것만 하지는 않겠지만, 컴퓨터는 정규적인 국제회의보다 더욱 값싸고 효율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을 연결할 수 있다. 국제 스터디스쿨은 교육과정이 참여적이며, 교육생들의 민주적인 통제 아래 진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 스터디서클이란 무엇인가?

국제 스터디서클(International Study Circle)은 세계적 차원의 교육을 실행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스터디서클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스터디서클은 노동조합에 의해 활용되어 왔으며, 민주적인 토론과 논쟁 문화를 건설하는데 기여해 왔다. 대부분의 스터디서클 경험은 특정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국제 스터디서클은 기층 단위에서 실행되는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춘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추구한다.

국제 스터디서클은 몇몇 나라에 토대를 둔 노동자 그룹을 조직함으로써 작동하고 있다. 각 그룹은 동일한 교육자료, 동일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국제적인 쟁점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만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6주 동안 계속되며, 주별 모임은 2시간정도 진행된다. 그룹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간사(coordinator)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다른 그룹이 다음 모임에서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국제 스터디서클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나라들의 노동자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세계화에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스터디서클은 참가국 노동자들 사이의 공동 행동과 장기적 연결고리와 연대를 추구한다.



아시아지역 국제스터디서클 준비세미나

IFWEA는 이미 12개국 노동자들을 위한 2개의 국제 스터디서클을 운영한 바 있다. 페루, 남아프리카, 영국, 프랑스, 바르바도스, 독일, 케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에서 모두 15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 스터디서클 프로그램은 초국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국은 초국적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국인투자자의 이익과 불이익,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며, 초국적 기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세계화에 대한 정보 공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은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의 영향에 관해 귀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프로젝트 관련 웹사이트에 보낸 보고서에서 발췌한 몇 가지를 다음에 소개한다.

① 영국 스터디서클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동안 영국의 문화는 엄청나게 변했다. 전통적으로 일자리 확보와 연계되어 왔던 외국인투자의 거대한 투자는 지금 일자리 상실을 그 대가로 지불하고 있다. 완전한 고용권과 혜택을 누리는 많은 수의 장년 노동력이 숙련이 높지만 권리는 적은 청년 노동자들로 대체 당해 왔다. 모회사에 필요했던 일자리와 직원들, 그리고 많은 부서들이 하청화되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이 이러한 경향을 이끌고 있다. 그 결과 빚어지는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은 지역사회를 황폐화하고 있다.”

② 남아프리카 스터디서클 보고서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가 유익하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외국인 투자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윤을 증대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도입하는데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는 값싼 노동이 가능한 근비층과 관련된 곳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값싼 노동을 공급하고 노동기준을 무시하기 위해 지역의 하청업자들 활용한다.”

③ 케냐 스터디서클 보고서에서

“초국적 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에 있는 같은 초국적 기업에 있는 노동조합들과 연계를 늘이고, 로비와 소비자 불매운동을 조직하며, 시위를 조직하는 것 등이다. 동일한 초국적 기업에 속한 노동조합들은 각국의 노동조건과 서비스가 균등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차원의 태업 및 공동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국제산별연맹들(ITSSs)은 초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에 강력한 공장조직들 만들 수 있도록 가맹조직들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산별연맹들은 동일한 초국적기업들에 속한 각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

④ 스웨덴 스터디서클 보고서에서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은 다자간 투자협정(MAI)에 관한 비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LO는 제안된 협상 내용을 비판하지 않지만, LO는 종업원들의 권리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MAI가 수용할 수 있도록 스웨덴 정부를 포함한 다른 협상 파트너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스터디서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FWEA 회원조직은 ‘세계화와 아시아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 스터디서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대만, 인도, 호주, 파키스탄, 필리핀의 노동교육가와 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가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1999년 2월에 아시아·태평양의 6개국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2주마다 열리는 6번의 모임이 진행될 것이다. 세계화는 이 지역이 지금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주제다. 세계화는 무차별적인 자유화와 국제금융시장을 가로지르는 통제불능의 투기자본의 운동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아시아 노동자들이 치르는 대가는 크다. 이 지역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공장은 보다 값싸고 온순한 노동자들을 찾아 국경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다. 인도에는 1억 7천만명의 실업인구가 있으며, 필리핀에는 3백만명 이상의 실업자와 7백만 명에 이르는 불안전취업자(반실업자)가 있다. 이런 문제는 산업화된 일본과 한국에도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지역 국제스터디서를 준비세미나 참가자들과 IFWEA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간담회

작업 조직도 변하고 있다. 지금의 작업조직 방식의 특징은 노동의 유연화가 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다수의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한다. 노동의 유연성은 작업장에 여성과 견습공과 이민자들을 늘리고 있다. 또한 이것은 노동조합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많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파업·단체교섭·조직 권리를 이전보다 심하게 제약 당하고 있다.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일국·지역·국제 수준의 노동자 연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자 투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가? 어떤 형태의 노동자 조직이 필요한가? 어떤 생점들을 바탕으로 해야 연대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가? 새로운 세계적 질서와 위기는 이러한 도전을 아시아 노동조합운동에 던지고 있다.

지난 9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국제 스터디서를 준비 세미나'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에서 초국적 기업의 역할,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을 포함하여 세계화의 핵심 기관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 다음 세계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이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두 번의 모임을 가질 것이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다음에 IFWEA는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 차원의 향후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세미나에 관심 있는 많은 조직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활동

아시아의 스터디서클과 더불어, IFWEA는 몇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스터디서클이 산업 단위에 적용되는 방식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국제식품노동조합연맹(IUF)과 함께 우리는 식품부문의 초국적기업에서 국제 스터디서클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동일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공장 노동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노동조합의 핵심 문제, 국제적인 경영전략, 이에 대항한 노동조합의 국제적인 전략을 주제로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 스터디서클이 동일한 초국적 기업에 속한 각국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조직을 강화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국제 스터디서클은 여성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역시 식품 산업의 세계화가 초점이 될 것이다. 식품 산업에서 여성들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배, 수확, 처리, 준비, 접대에 관여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점차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은 시민들의 근로생활, 의식주, 그리고 안전과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분야의 국제 스터디서클은 니카라과아, 페루,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케냐, 남아프리카,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필리핀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연대 활동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IFWEA는 세계 경제에서 이민노동자들이 초래하는 문제에 관해 스터디서클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화는 취약하고 조직되지 않은 대규모 노동자들이 세계 각국을 떠돌아다니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값싼 경쟁에 두려움을 느끼는 각국의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 교육프로그램은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며,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이민노동자와 관련한 노동조합 정책을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IFWEA는 국제적인 수준의 단체협약,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초국적 기업의 조직화 및 노동자 권리에 초점을 맞춘 국제 스터디서클을 준비하고 있다.

결론

노동자 교육은 국제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보다는 폭넓게 교육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계화는 노동조합교육이 강력한 국제적인 비전을 갖고, 각국의 직업장 문제를 세계적 상황과 연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거대한 초국적기업과 강력한 세계금융기구를 앞에서 무력함과 고립감을 자주 느낀다. 노동조합 교육은 노동운동에서 가장 좋은 투쟁의 수단이 국제연대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국제 스터디서클은 노동조합교육을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IFWEA 프로그램이 각국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국제연대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각국의 교육방법과 교육활동을 집단적으로 공유해야 하며, 적절한 역량과 분명한 비전을 갖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

IFWEA와 국제스터디서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 이름 : Alana Dave
- ✓ 주소 : IFWEA, c/o GMB College, College Road, Whalley Range, M16 8BP, Britain
- ✓ 전화 : +44-161-8605952
- ✓ 팩스 : +44-161-8811853
- ✓ e-mail : alana.dave@mcr1.poptel.org.uk
- ✓ 홈페이지 : <http://www.ifwea.org>